

900선 문턱 넘은 코스닥, 10兆 IPO 새내기 줄줄이 대기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정책에 활기 현대오일뱅크 등 대어급 시장 주도 카카오게임즈 게임주도 관심 쏠려

코스닥지수가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900선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공모주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 등 '대어급'으로 꼽히는 기업들과 카카오게임즈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올해 연간 공모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올해 IPO 공모 금액 규모가 총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공모금액은 약 7조9000억원이었다. 이 중 코스닥에는 약 3조5258억원의 공모금액이 몰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상장 후보군)

기업명	공모 진행사항	비고
JTC	상장예비심사 진행 중	일본기업
SK루브리컨츠	상장 주관사 선정	공모금액 1조원 이상 추정
SNK코퍼레이션	상장 주관사 선정	일본기업
교보생명	상장 유력 후보	공모금액 1조원 이상 추정
남화산업	상장 주관사 선정	골프장 운영 전문기업 상장 1호 전망
바디프랜드	상장 유력 후보	안마의자 브랜드 1위
블루홀	상장 유력 후보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롯데정보통신	상장 주관사 선정	롯데지주 출범 이후 첫 상장
애경산업	상장예비심사 진행 중	2018년 코스피 1호 상장 예정
에이산	상장 주관사 선정	일본기업
이디야커피	상장 주관사 선정	커피 프랜차이즈 첫 상장
지누스	상장 주관사 선정	아마존 매트리스 매출 1위, K-OTC 시총 1조
카카오게임즈	상장 주관사 선정	2018년 코스닥 공모 1위 예상
케어랩스	상장예비심사 진행 중	O2O 기업 상장 1호 전망
티웨이항공	상장 주관사 선정	세 번째로 상장하는 LCC
현대오일뱅크	상장계획 발표	공모금액 2조원 이상 추정
호텔롯데	상장 주관사 선정	사실상 무기한 상장 연기 중

/자료=SK증권

상장을 준비중인 현대오일뱅크는 시가총액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주식의 20~30% 수준인 코스피 평균 공모 비율을 감안하면 공모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

SK그룹 계열의 SK루브리컨츠는 상

장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다. 시가총액 5조원 이상, 공모금액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윤활유 회사로 2015년에도 상장을 시도했지만 실적 하향 등의 여파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SK그룹은 수

면장에 치료제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SK바이오팜의 상장도 예정돼 있어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대기업으로 꼽힌다.

AK그룹의 '알짜회사'로 꼽히는 애경산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치약, 세제 등의 생활용품은 주로 생산하는 애경산업은 최근 화장품 호황과 중국 진출을 계기로 성장성이 부각된다.

안마의자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도 상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바디프랜드는 IPO를 통한 엑시트(자금 회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적이 급성장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해 시가총액이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호텔롯데의 상장도 관심사다.

코스닥시장에선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 상장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 가치가 1조~1조5000억원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낸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은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를 비롯해 테슬라상장제도 요건 완화 등 정책 지원을 밝히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시기보다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교통 솔루션 기업 에스트래픽은 112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증거금도 2조4030억원이 몰렸다. 상신전자, 영화테크, 비디아이 등도 청약 경쟁률 1000대 1을 넘었다. 그러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1월 상장한 공모주 50개를 분석한 결과 공모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16개 중 43.8%는 상장일 증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공모 규모 300억~500억원(8개)은 25%, 100억~300억원(23개)은 21.7%로 비율이 낮아졌다. 100억원 미만 공모주(3개)는 모두 상장일 증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유전자변형물체' 차단 법안 만든다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번식 가능해 생태계 교란 위험성 높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체(LMO)'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이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MO 수입 제한 조치는 물론,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지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것으로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식품이나 사료 등 LMO를 이용한 가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는 달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유전자 변형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 평에 이르는 유전자 변형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검출때 수입자의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LMO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이미 수입돼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반송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종 기자 grandtrust@

최종구 "소상공인·중소 고용유지 땀 대출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등과 서울 중구 방산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난 2일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지화 기자



AK플라자 평택점 키즈파크 전경(왼쪽)과 아이파크몰 풋살경기장 전경.



/AK플라자·현대아이파크몰

옥상 마케팅으로 '집객효과' 높인다

체험형 매장·키즈 카페 등

오프라인 점포 돌파구 마련

유통업계가 쇼핑물 옥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번져가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불황이 이어지자 집객을 높일 수 있는 돌파구로 '옥상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옥상 활용해 '키즈 고객' 모신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가 평택점 옥상에 키즈파크 '닥터밸런스'를 오픈하고 동시에 키즈브랜드를 대거 늘렸다.

최근 3년간 평택시 인구가 매년 1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스포츠 키즈 브랜드 매출도 덩달아 증가, 0세~12세 키즈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브랜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서 AK플라자는 오픈 전인 지난 11월 중순부터 연간 회원권 사전 할인 판매를 실시, 누계 매출이 1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키즈 고객 모시기'는 AK플라자의 특화된 '고객 맞춤형 매장' 구성의 일환이다. 최근 평택시의 상권 확

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30~40대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매장을 제공할겠다는 전략이다.

평택시는 오는 2020년 예상 총인구가 86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사회적 생활활동이 활발한 30~40대다.

평택시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30~40대와 이들 자녀의 비율이 평택시 전체 인구의 56.4%를 차지한다.

AK플라자 평택점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30~40대 매출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고객의 자녀를 위한 소비로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스포츠 키즈 브랜드 매출은 평균 45%나 증가했다.

◆풋살 동호인 쇼핑물로 모인다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한 풋살장도 인기다. 대표적으로 용산 아이파크몰은 2012년 처음으로 쇼핑물 옥상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했다.

아이파크몰은 지난달 옥상공간에 풋살경기장을 신축, 기존 2개의 야외 구장과 1개의 실내구장과 함께 총 8개의 풋살장을 갖췄다.

아이파크몰은 연 15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풋살장을 방문하고 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연 5만명 이상의 일반 고객이 풋살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적화된 현대아이파크몰 마케팅 팀장은 "전국에 20만명의 풋살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다"며 "유소년 축구 교실과 회사 단합대회, 여성들의 건강 다이어트 운동 등 저변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풋살파크장이 대표적이다. 홈플러스는 총 11개의 점포에서 옥상에 풋살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마케팅기업 HM스포츠와 동대문점에 전환형 인조잔디가 깔린 국제규격(길이 42m·너비 22m)의 풋살파크를 오픈했다.

홈플러스와 HM스포츠는 이달 전주 완산점을 추가로 열고 연내 부산, 천안, 창원, 순천 등 각 권역 구장을 2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풋살 리그도 준비 중이다.

권영휘 홈플러스몰리빙 팀장은 "대형 건물 옥상을 활용한 풋살장은 체육발전과 함께 삭막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한다는 의미도 있어 마이애미, 도쿄, 상하이 등 해외 대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변신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